

#호주 #프리미엄

'호주 프레스티지 와인의 대표 브랜드'

펜폴즈 맥스 쉬라즈

Penfolds MAX's Shiraz

지역	호주 〉바로사밸리		
포도품종	쉬라즈 100%		
알코올	14.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바닐라, 커스터드의 크리미한 향과 넛맥, 시나몬, 진저 등의 스윗 스파이시 뉘앙스가 감돈다. 블랙체리, 플럼의 강렬한 풍미와 티라미수 케이크와 모카, 다크 초콜릿 등의 풍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12개월 간 오크 숙성을 통해 얻어진 감미로움과 탄닌의 실키한 텍스처가 돋보이며 오픈 초기의 풍미 보다 중반부와 후미로 갈수록 와인의 캐릭터가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페어링 TIP	소고기/양고기/파스타/치즈		

당도	DRY				SWEET	바디	LIGHT				FULL
	1	2	3	4	5		1	2	3	4	5

제품설명

펜폴즈 '맥스' 브랜드는 호주 국보 와인 '그랜지(Grange)'를 양조한 와인 메이커 '맥스 슈베르트(Max schubert)'를 기리며 만든 프리미엄 제품으로 펜폴즈 와이너리의 집약된 와인 양조 노하우와 퀄리티를 여실히 경험할 수 있다. 맥스는 1948년부터 1975년까지 펜폴즈의 수석 와인메이커로 펜폴즈와 호주를 대표하는 아이콘 와인 '그랜지(Grange)'를 양조했다. 맥스는 와인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와인의 pH 컨트롤과 화이트와인의 저온 와인 안정화라는 혁신적인 와인메이킹을 주도, Member of the Order of Australia', In 1988 Man of the Year by Decanter로 선정된 바 있다

*호텔·레스토랑 전용 와인

와이너리

호주 국보급 와인으로 꼽히는 펜폴즈(Penfolds)는 1844년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크리스토퍼 로손 펜폴즈(Cristopher Rawson Penfolds)가 치료 목적으로 와인을 처방하기 위해 와이너리를 건립하며 역사가 시작된다.빈티지에 따른 와인 맛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특유의 멀티 리저널 블랜딩 기법 도입, 제품별 pH 도수 확인 등 호주 와인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그랜지(Grange)'를 비롯해 뛰어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펜폴즈의 대표 와인은 '그랜지(Grange)'로 전세계 와인 애호가가 손꼽는 명주로 꼽힌다.호주의 국가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51년 생산한 이래 지금까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로버트 파커는 '그랜지'를 가리켜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레드와인"이라 찬사를 쏟은 바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